

(소재지; 가평군 상면 연하리)

성상(聖上) 37년 신사(1761; 영조 37) 1월 5일 을사(乙巳)에, 공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서, 사제(私第)에서 별세하였다. 그런데 10일 이전에 목가(木稼)의 변고가 있었고, 연이어 별이 떨어졌으니, 아! 하늘이 구상(咎象)을 보여준 것인가? 공은 연안인(延安人)이다. 선고 휘(諱) 주신(舟臣)은, 옥천(沃川) 군수, 월사(月沙) 문충공(文忠公) 휘(諱) 정귀(廷龜)의 5대손이다.

공은 3세문형의 뒤를 이어, 조년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늦게 급제한 뒤에는, 명망이 높고 출중하였으니, 처음 남상(南床)이었을 때부터, 영예로운 관직을 역임하면서, 두루 칭송되지 않음이 없었다. 밖으로는 해변(海蕃)에서 능력을 시험하여 보였고, 돌아와서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일에 연루되어 출보(出輔)되었다가, 대신들의 구해(救解)로 곧 중지되었다. 이에 드디어 상계서 쓸만한 인재임을 살펴 알고, 특별히 아전(亞銓)에 발탁하였다. 이전에 사람들이 탕평(蕩平)을 빙자하여, 각기 따로 하나의 당을 결성하였는데, 공은 그들의 편사(偏私)함을 미워하였으나, 충원(忠冤)을 이미 풀었고, 의리(義理)도 펼쳐졌으니, 제한해야 할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재주가 있으면,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관(銓官)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말하였는데, 이때문에 공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혹 공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공의 평소 뜻이, 시론(時論)과 달랐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헌대부(資憲大夫) 장사마(長司馬)에 올랐다가, 동전(東銓: 吏曹)으로 옮겨졌고, 다시 장사마가 되었다. 그리고 곧 대(台)에 들어갔으니, 벼슬에 있지 않은 기간은, 겨우 14년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매우 질시하고 의심하여, 마침내 조종부(趙宗溥) 조영순(趙榮順)등이, 끔찍하게 무함(誣陷)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상계서 모두 엄히 물리치며, 이를 명백히 밝혔고, 사람들도 모함하는 말이 사적인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았다. 공이 대배(大拜)한지 10년 동안, 네 번이나 상상(上相)이 되었다. 성품이 본래 소탈하고 정직하며, 아용(阿容)을 일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상의 뜻에 거슬렸지만, 아무런 하는 일없이, 오래도록 그 지위에 안주한 적이 없었다. 그 사이 임금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힘쓰고 명을 받들었으나, 국사(國事)는 점점 더욱 어지럽고, 근심스럽게 되었다. 때문에 성의를 다하여 진계(陳戒)하였으니, 끝내 임금의 엄한 명으로 파직되었다. 왕실을 생각할 때면, 한밤중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공의 문아(文雅)하고, 청소(靑素)한 품모와 같은 것은, 진실로 가풍에서 연유한 것이며, 천부적으로 심회가 넓고 뇌락하니, 혼란한 말세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이다. 또한 범위(範圍)가 크고, 지려(志慮)가 깊으며, 규모(規模)가 간결하고, 변화에 대처함이 원대하고 넉넉하다. 은거한 이후로 사대부의 명절(名節)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연히 스스로 독려하여 유학(儒學)을 중흥시키고, 풍의(風義)를 장려하였으니, 식견이 노년이 될수록 더욱 높아졌다. 만약 일을 맡아 재식(才識)을 다 펼칠 기회가 있었다면, 인군의 덕을 높이고, 세도(世道)를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형세를 큰 반석 위에 올려놓은 듯이, 안정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공을 남겨두어, 재주를 다 사용하게 하지 않은 데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임종(臨終)에 신기(神氣)가 차분하고,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영원히 임금의 얼굴을 뵈 수 없는 것이, 나의 한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시는 사람을 시켜 유소(遺疏)를 초하게 하였는데, 인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언사에 가득 차 있었다. 염습을 할 때가 되었으나, 집에 염습할 옷이 한 벌도 없었으니, 상계서도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남달리 여겼고, 비록 평소에 달갑지 않게 지내던 사람들도, 공의 청덕(淸德)에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자가 의숙(宜叔), 자호는 진암(晉菴)으로, 무인년(1698; 숙종 24)에 태어났으니 향년 64세이다.

계자(繼子)는 문원(文源)이고, 세 따님은 각각 조준(趙竣), 오재순(吳載純), 서유방(徐有防)에게 출가했다. 세계(世系)와 관력(官歷)은, 황공(黃公) 경원(景源)이, 묘지에 갖추어 기록하였다. 종형 행(行) 이조판서(吏曹判書) 정보(鼎輔)는, 그 대략을 뽑아서, 눈물을 닦으며 묘석에 기록한다.

부인은 부사(府使) 상유(相維)의 따님이니, 조부의 휘(諱)는 규렴(奎濂)으로 판서를 지냈다. 공보다 한 살이 많고, 성품이 유순하였으니, 공의 상을 당하여, 함께 세상을 떠나지 못한 것을 지극한 한으로 여기더니, 끝내는 공을 장사한지 하루 뒤에 별세하여, 부좌하였다. 아! 또한 슬프도다. 삼가 이를 추기하는 바이다.

숭정 기원후 세번 째 신사년(1761 영조 37) 5월 일에 세운다.

단기 4308년(1975)을 묘년 여름에 김포(金浦) 오정(吾丁)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참고)

이천보(1698~176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연안(延安)이며, 자

(字)는 의숙(宜叔)이고, 호(號)는 진암(晉菴)으로, 옥천(沃川)군수 주신(舟臣)의 아들이다.

생원시에 합격하여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있다가, 영조 15년(1739), 42세 나이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가 되었다. 1740년 홍문관에 들어가 정자(正字)가 되고,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다음해 시강원 사서(司書)와,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곧 이어, 이조정랑 교리를 제수 받아, 동학한학교수(東學漢學敎授)를 겸직하고, 사간원 헌납 겸 교서원 교리로 옮겼다. 다음해 1월 사서(司書)로 어사가 되어, 옥천(沃川)을 살피 다스리고, 돌아와 수찬 부교리 겸 문학이 되었으며, 9월 성균관 사예(司藝), 사헌부 정령(掌令)에 옮기고, 12월 사복시정(司僕寺正) 겸 필선(弼善)을 제수 받고, 다시 부응교가 되었다.

이후 시강원 보덕(輔德)과, 세자빈을 책봉함에 공로가 있어, 동부승지로 승진하였으며, 사간원, 대사간, 병조참의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를 제수 받았고, 부제학 이조참의가 되어서는,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아, 고부(古阜) 군수가 되었다.

영조 25년(1749) 이조참판을 제수 받아, 동지 의금부사, 예문관 제학, 세자우부빈객을 겸임하였다가, 1750년 사직하고, 형조참판을 거쳐, 다시 이조로 들어가, 참판이 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비변사, 유사, 제조(備邊司有司提調)를 겸직하였다. 이듬해 2월에, 병조판서, 지의금 부사에 탁배(擢拜)되고, 12월에 이조판서로 옮겼다.

이후 다시 병조판서가 되고, 1757년 6월 의정부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가, 5개월 후에 좌의정이 되었다. 1754년 영의정에 올랐다가, 영동녕부사로 전임되었으며, 다시 영의정에 제수 되었으나, 사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는 직언(直言)을 임금에게 자주하여, 벼슬이 오를락 내릴락 하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영조가 세자에게 선위(禪位)하심에, 공(公)이 육화정(六化亭)을 짓고, 빈객들을 맞이하여 소요하였으나, 다시 영중추부사를 제수 하였다가, 다음해 병이 위독하자, 영조가 태의(太醫)에게 명하여, 왕진하라 하시고, 약을 하사하여 안부를 물었다. 1761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하여 음독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진암집(晉庵集) 8권 4책이 있고,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한국금석문대관·권 1; 연안 이씨 편·

고려금석원장 진한용 발행, PP731~736 인용)

XVII-2 領議政 文簡 李公 天輔之墓碑

(所在地; 加平郡上面連下里)

有明朝鮮議政府領議政諡文簡李公諱天輔之墓

貞敬夫人恩津宋氏附左

聖上三十七季辛巳元月五日乙巳公以領中樞府事卒于第前十日木稼告災繼而星隕
嗚呼大其示咎相歟公延安人考諱舟臣沃川郡守月沙文忠公諱廷龜之五代孫也公承
三世文衡之後蚤以文章名晚而登第標望出等夷始自南床名塗榮選靡不歷敷外試海
藩還爲吏曹參議坐事黜補因大臣救解旋寢 上遂察其可用特擢亞銓先是時人籍蕩
平自成一黨公嘗深惡其偏私以爲忠冤旣雪義理且伸凡不干堤防者惟才是用及入銓
以此說陳之不知公者或以是疑之而公之素志與是論異也未幾陞資憲長司馬遷東銓
復長司馬仍入台釋褐僅十四季也一種人猜嫉忒甚卒有趙宗溥趙榮順等僭誣 上皆
嚴斥而昭晰之人亦知其言之出於逞私也公大拜十載四作上相性本忝直不事阿容
屢拂 上意未嘗久安其位無所施措間因 思諭黽勉承命然國事轉益艱虞竭誠 陳戒
竟遭 嚴旨而罷每念 王室未嘗不中夜攬涕焉噫若公文 雅清素固得之家傳而天
賦魁磊恢曠非叔世人物範圍大而志慮深遠規模簡而通變弘裕自屏居以來見士大夫
名節盡泯奮然自勵重儒學而獎風義見識所造老而益高若使得遇事會盡其展布庶可
以尊 君德靖世道措國勢於泰磐之安其於天不遺而究其用何哉悲夫臨終神氣整暇
語不及私惟曰永隔 天顏是吾恨也命侍者草遺疏愛 君憂國之意溢於辭表及殮家無
一襲衣 上聞而嗟異雖素所不悅者莫不服其清德云公字宜叔自號晉菴生于戊寅享
季六十四繼子文源三女趙琰吳載純徐有防世系官歷黃公景源具誌于壙從兄行吏曹
判書鼎輔撮其大略攷涕而記諸墓石

夫人府使相維之女祖諱奎濂判書長公一歲性柔順及公之喪以不得同歸爲至恨竟卒于葬
公之越一日而合祔吁亦悲矣謹此追記 崇禎紀元後三辛巳五月 日立 檀紀四三〇八年
乙卯夏自金浦吾丁遷葬于此地

(비문전재이기; 가평문화원장 신일균)

有明朝鮮議政府領議政
 謚文簡李公諱天輔之墓
 貞敬夫人息津家氏祔左

聖上三十七年辛巳元月五日乙巳以領中樞府事卒于第前十
 日本後告災而星隕焉其示咎與歎公延安人考諱舟臣次
 川郡守月沙文忠公諱廷龜之五代孫也公奉三世文衡之後蚤以
 文章名晚而登第擢學出等夷始自南床名塗躋遷虛不屈厥外諱
 海藩還爲災曹參議坐事黜補因大臣救解旋寢上逆察其可用
 特擢至銓先是時人繕善平自成一賞公嘗深惡其偏私以爲忠寬
 既雪論理且仲凡不干堤防者惟才是用及入銓以此說陳之不知

그림 XVII-1 이천보 묘비 (앞면)

公者或以是疑之而公之素志與時論異也未幾陞齊憲長司馬遷
 宗澤補榮師等情誣上皆厭斥而昭晰之人亦知其言之出於運
 私也公大拜十載四任上相性本疎直不事阿容屢拂上意未嘗
 久安其位無所施措間因恩論龜勉承命然國亦轉益艱虞端誠
 陳誠竟迎嚴旨而罷每念王室未嘗不中夜振盪焉憶若公文
 雖清素固得之矣傳而天賦魁磊恢恢非叔世人物範圍夫而志愿
 深遠規模簡而通變弘裕自屏居以來見士大夫名節蓋隨奢然自
 勵重儒學而獎風義見識所造老而益高若使得遇事會盡其展布
 展可以身君德靖世道措國勢於泰艱之安其於天不遺而究其
 用竹幾悲夫臨終神氣整暇語不及私惟曰永隔天淵是吾恨也
 命侍者草遺疏愛君愛國之意溢於辭表及驗安無一龍衣上
 聞而嗟異雖素所不悅者莫不服其清德方公字宜叔自號晉菴坐
 于成宜年六十四繼子文源三女趙孩吳載純徐有防世系官歷
 黃公景源具誠子廣從兄行吏曹判書鼎輔攝其大略按淨而記諸
 墓后

그림 XVII-2 이천보 묘비 (뒷면)